

건강한 교통문화는 건강한 일터에서

도로교통공단 |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박여민 사진 김민정

도로교통공단

기관 형태
공공기관

소재지
전국(본부, 13개 지부,
12개 교통방송본부,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노동자 수
2,973명

도로교통공단은 1954년 설립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 전담기관이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국내 교통안전의 기틀을 다져왔으며,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고예방 교통체계 확립, 교통약자까지 배려하는 안전 문화 정책 등 도로 위의 교통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자율주행 기반 미래 교통인프라 구축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기술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 본부를 둔 도로교통공단의 조직은 전국 13개 지부, 12개 교통방송본부, 27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면허시험에서부터 방송까지 교통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요 업무에 따라 각 조직의 현장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진행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이렇게 각기 업무가 다르고 또 전국에 흩어져있는 도로교통공단 조직의 유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전문가 참석 더하고, 현장 활용도 높은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위험성평가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고, 두 번째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조사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의 유해·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조직의 위험성평가를 진단하여 점수화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경영실의 백성종 과장은 컨설팅 내용을 ‘교육·점검·참석’으로 요약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컨설팅이 현장의 위험성 요소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에서 끝나지 않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기준으로 실제 우리 현장에 대한 채점까지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로 채점된 점수에 안전기술사의 참석까지 더해져 정량적인 동시에 정성적인 내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를 토대로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간 것은 물론이고 공단의 위험성평가 세척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국 53개 사업장에서 678건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지 컨설팅만으로 현장을 바꿀 수 없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 1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경영실 구성원들
- 2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도로교통 전문 기관이다.

컨설팅 문의 및 신청 방법

대한산업보건협회
 중대재해예방실
 전화 02-2046-0522~7
 전국 지역본부 및 센터
 협회 홈페이지 참고

법. 도로교통공단이 컨설팅 이후 그 결과를 활용하는 모습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 이유다. 공단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침서를 개정하고, 그간 부재했던 소방·전기 시설에 대한 관리지침을 수립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장 순위를 매겨 우수 사업장에 별도 포상도 진행했는데, 이러한 활동 결과 공단 전체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다.

도로교통도 일터도 최우선 가치는 ‘안전’

한편 지난 10월에는 본사 안전경영실 바로 옆 공간에 건강관리실이 문을 열었다. 직원 300명 이상 규모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에도 아직 건강관리실을 갖춘 곳이 많지 않은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선제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근무 중 두통이나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의 방문과 건강 유소견 직원들의 정기 상담 등이 진행되며 한 달 평균 50여 명의 직원들이 찾는다고 한다. 본사에서 호응이 좋은 만큼 전국의 지방조직에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안전·소통·책임·열정’은 도로교통공단의 4가지 핵심가치다. 모든 가치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안전’이라고. 전국의 도로와 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만큼, 무엇보다 그 일을 해내는 직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앞장서서 구축해 나간다는 다짐이다. 🍷

❶ 본사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개소한 건강관리실은 월 평균 50여 명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다. 향후 전국 조직으로 순차적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도로교통공단 위험성평가 현황

심사기준 및 채점표 (대구지부)

심사위원 직책	직책	성명	오병선	(확인증)
평가분야	심사기준	배점	특정	
위험성 추정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성(빈도)의 적절성, 중대성 (강도) 적절성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30/24/18/12/6점) 	30	18	
유해위험 요인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업내을 반영여부, 유해위험요인의 적절성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30/24/18/12/6점) 	30	24	
감소대책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소대책의 적절성, 개선 후 위험성의 적절성 (단순 교육 등 행정적 절차 외에 유효한 대책 (시설물 개선, 작업공정 변경, 안전용품 추가구입 등)을 시행하여 개선되었는가)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40/32/24/16/8점) 	40	24	
합 계		100	66	

[해당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공정성과 세부적업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위요인에 관하여에 대한 공적(행위): 청사관리, 행정업무, 안전교육, 안전사실, 안전조사내용, 안전공인장사실 작성됨.
- 행위요인에 대한 세부적일, 안전사실은 출장업무로, 안전공인장사실의 포함 등 검토 필요함.
- 행위요인도 빈도에서 검토하여 후 빈도로 낮추는 개선대책으로는 현상수치에 있어 있음.
- 위험성(빈도) 중시 여부, 중점내용(공, 사업개선, 전기안전, 열매등안전) 등
- 개선요인(내용) 상으로 적절함. 검토 필요함.
- 개선(인쇄) 내용 개선(행위)으로 적절 기록하여야 함.
- 관리(대책)에서 공적(대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적합관련 총사제외 의견(참)이 가진 및 예산편성 등

가장 좋았던 것은 컨설팅이 현장의 위험성 요소에 대한 점검과 대안 제시에서 끝나지 않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기준으로 실제 우리 현장에 대한 채점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②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통해 진행된 전국 현장 심사기준 및 채점표

Mini Interview

노명진 안전경영실 실장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4년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하여 본사에 23년, 지방조직에서 5년이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기획업무를 많이 담당해왔는데, 지금은 이곳 안전경영실에서 우리 공단의 선제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Q. 안전경영실의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안전경영실은 이사장 직속 기관으로 우리 공단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 내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그에 따라 안전경영실도 조직이 커졌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본사 보건실 운영도 시작했구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년까지 안전경영에 대한 관리체계가 정립되었다면, 올해는 이것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는 2020년 8건에서 2021년, 2022년 4건으로 점점 감소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노력은 물론 직원들의 의지가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안전보건관리 선도기관으로서, 아직 체계를 구축 중인 타 기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와 직원들의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최고경영자인 이사장께서 안전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고, 직원들은 이를 잘 믿고 따라와 주셨습니다. 안전보건은 잔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국민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늘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